베풀어 주는 보시를 실천하는 문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대승불교의 실천강목(實踐綱目)을 하나로 말하면 바라밀행(波羅密行)이라 한다. 이는 보살들의 수행강령이다. 성문(聲聞)이나 연각(緣覺)이 사성제와 십이인연을 통하여 수행을 성취하는 것과는 달리 보살의 수행은 이타의 원력을 상징하는 바라밀다의 완덕(完德)을 추구하는 것이다. 사실 보살들은 이승(二乘)들처럼 자신의 번뇌를 끊는데 치중하지 않고 이타원력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번뇌를 극복해 버리는 것이다. 이른바 소승과 대승의 차이를 말할 적에 소승은 해탈지상주의라 한다면 대승은 구세대비주의라 한다.

〈기신론〉은 대승 수행의 표준 교과서이다. '수행신심분'에 들어와서 먼저 네 가지 믿음을 설명하고 이어 수행의 다섯 가지 문을 밝힌다. 시문(施門), 계문(戒門), 인문(忍門), 진문(進門), 지관문(止觀門)의 다섯 문을 열어 대승을 수행하는 사람이 이 문으로 들어와야 대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육바라밀을 선정과 지혜를 지관으로 묶어 5문으로 말한 것이다. 먼저 본문에서는 시문을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시문을 수행하는가? 만약 중생이 와서 구하거나 찾는 것을 보거든 능력에 따라 베풀어 주어서 스스로 인색함을 버려 그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며, 만약 액난과 공포와 위급함을 당한

施門 · 戒門 등 다섯 문 열어야
대승불교 수행 비로소 완성돼

자를 보면 자신의 감당할 능력을 따라 무외(無畏: 두려움이 없는 편안함)를 베풀어 주며, 만약 어떤 중생이 와서 법을 구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아는 대로 방편을 써서 설해 주되 명리(名利)와 공경을 바라지 말고 오직 스스로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만 생각하고 보리에 회향해야 한다."

시(施)란 보시(布施)의 줄인 말로 범어의 어원은 다나(dana)이다. 희사(喜捨)라고도 번역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한다. 결국 "남에게 도움을 주어 이롭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인간의 보편적 실천 덕목이다. 이 보시가 육바라밀을 대표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재난(災難)을 당했을 때나 공포를 느끼고 위험한 환경에 처했을 때 자신의 능력대로 그 사람을 구출하여 안전하게 보호해 주어야 한다. 또 진리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아는 것을 방편을 써서 설명해 주되 명예나 이익 또는 존경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며 오직 자신의 수행에 이로움이 오고 남에게도 이로움이 미치도록 하여 결국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마음을 써야 한다고 하였다.

물질적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재시(財施)라 하고 법을 설해주고 학식이나 지적인 이해를 높여 주는 이익을 법시(法施)라 하며, 정신적인 편안함과 안전을 느끼도록 해 주는 것을 무외시(無畏施)라 한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 세 가지 보시의 혜택이 필요하지만 혜택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인간 상호간에 불신이나 미움으로 인하여 보시의 문이 닫혀버리고, 혜택을 주고받는 통로가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보시의 문을 열고 은혜의 통로를 개통해야만 스스로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인간의 완덕이 성취되어진다. 보시는 불교의 근본정신인 자비심을 바탕에 두고 행해지는 것이다. 남을 즐겁게 해 주고 남의 고통을 덜어주는 자비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밝혀 놓은 것이 보시라 할 수 있다.

〈보시경〉이란 짧은 경전이 있다. 송나라 때 법현(法賢)이 번역한 이 경에는 37가지의 보시법을 설해 놓고 있다. 기수급고독원에서 비구들을 위하여 설한 이 경은 마지막에는 무주무상시(無住無相施)를 설하면서 금강경에 설해진 바와 마찬가지로 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할 것을 권장하였다. 그리고 보시를 할 때는 어떤 마음에서 해야 하는가 하고 묻는 사위국 왕의 질문에 자심(慈心), 정견(正見), 지계(持戒),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이 참된 보시라 하였다. 삼륜청정계(三輪淸淨偈)라는 보시게에도 보시를 할 때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고받는 물건 이 세 가지가 모두 없어진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삶의 쉼표

삶의 절반은 빛이요, 삶의 절반은 어둠이다. 빛만큼 행복하고 어둠만큼 불행했으면 절반의 수확은 거둔 셈이다. 그러나 행복은 빨리 지나가고 불행은 더디게 지나간다.

삶이 행복하고 풍요롭고 자유를 누렸으면 좋으련만 삶은 언제나 고단하고 팍팍한 그림자로 타는 목마름을 더해준다. 성경 구절처럼 두드리면 열리고 구하면 얻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불만과 권태는 마른버짐처럼 돋아나고, 헐떡임과 흔들림은 잘라내도 다시 자라는 손톱과 같다.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키가 자랄수록 졸아들고 나이테 주변에 몰리는 것은 외로움과 쓸쓸함, 등대지기의 절대고독이 어둠처럼 몰려온다.

새벽마다 설렘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지만 다람쥐의 쳇바퀴 도는 듯한 변화 없는 삶이 무기력하게 게으름과 타협한다. 주머니가 비어가면 몸도 마음도 으스스 떨리며 감기기운을 닮아간다.

전화 올 일 없고 전화 걸 일 없어 괜스

돈 · 명예에 자유롭지 못한 수행자는 중생
고단한 사람에게 좋은 스승 · 벗 돼야 한다

레 산길이나 공원엘 다녀온다는 퇴직 3년차 교장선생님이 또 다른 분신(分身)이 되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똬리를 틀고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지만 큰 길은 보이지 않고 진흙탕 길에 가시밭길이다. 형제, 자매끼리도 양보해야 예뻐 보이지 다툼이 비롯되면 원수지간이 따로 없다. 돈은 오늘날에 있어 신(神)이 된지 오래이다. 돈은 구원의 밧줄이 되기도 하고, 해결사의 몫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 때문에 건강을 잃는다. 명예를 잃는다. 사랑을 잃는다. 돈 때문에 생명마저도 앞당겨 마감하는 비극도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여, 지친 자, 목마른 자, 배고픈 자, 흔들리고 헐떡이는 자들을 위해 종교와 신앙은 열려 있어야한다. 지친 자들에게 성직자는 큰 나무처럼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이 되어야한다. 더러는 좋은 스승이 되고 착한 벗이 되어 편안함과 평화로움을 안겨 주어야한다.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삶의 지혜와 행복과 자유에 이르는 바른 길을 일깨워 줘야한다.

그런데도 우리네 주변엔 궤도를 이탈한 부끄러운 성직자들이 부지기수로 널려있다. 가난한 사람은 자유롭게 신앙생활도 할 수 없을 만큼 교회와 사찰에서는 헌금 타령과 시줏돈을 강요하는 듯한 권선문이 미운 바퀴 벌레처럼 기어 다닌다. 설교와 설법의 종착역은 역시나 돈 타령이고, 하나님이나 부처님의 친척이나 되는 것처럼 천국(극락)에 이르는 길도 돈 흥정으로 쉽게 매듭짓는다. 양심을 앞세워 양심을 파는 것이다.

불안한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공포심을 더해주며 헌금의 무게와 시줏돈의 부피로 영원한 행복을 간단하게 팔아치운다.

성직자는 성직자일 뿐 길흉화복을 해결하고 생명의 구원을 약속하는 메시아는 아닌 것이다. 받는 일에 익숙해져 주는 일에는 인색한게 이 땅의 성직자이다.

성직이 하나의 먹고사는 직업이 되어 갖가지 명분과 구실로 신도를 먹이로 삼는다면 이는 종교도 아니요, 신앙인도 아니요. 성직자도 아닌 것이다.

성직자는 사람인이상 흔들릴 수도 있고 헐떡일 수도 있다. 다만 지치고 가난하며 어둠 속의 사람들에게 신앙을 미끼삼아 교회가 배부르고 사찰이 거드름 피우는 부끄러운 작태는 이제 멈춰야한다.

신도들의 주머니가 비어 있는 경우는 많아도 성직자의 주머니는 비어 있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성직자가 비상금 준비라며, 노후대비라며 숨겨두는 돈의 부피가 늘어난다면 그는 이름이 성직자일 뿐 부끄러운 성직자이다.

비우고 버리며 꾸밈과 조작심을 벗어버린 상식이 통하고 기본에 충실한 성직자가 참 성직자인 것이다.

봉사와 희생, 이웃 사랑을 사탕발림의 입 노동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돈 사랑, 명예 사랑에 빠져들어 진정한 의미의 이웃 사랑은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피고 또 살 필 일이다.

세상 사람들은 고달프다. 팍팍한 현실에 힘겨워 한다. 그렇다면 종교 신앙은 열려 있어야 하고 성직자는 이들의 벗이 되어야한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지친 몸과 마음을 편하게, 부담없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열려 있어야한다.

돈과 명예, 이성(異性)에 자유롭지 못한 성직자라면 그는 생각의 윤회를 거듭하는 중생일 뿐이다. 삶의 무게에 눌려 지치고 고단한 사람들에게 삶의 쉼표로 좋은 스승, 착한 벗이 되어야 한다. 삶의 쉼표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성직자의 말과 행동이 의문부호로 남는 물음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보살은 걸인을 좋은 친구로 삼는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㉕ 중생과 보시의 의미

若有乞者無上菩提便為手執不難。菩薩聞乞者言與我與我心生歡喜。此今æ 便與我無上菩提。世間愚癡眾生若聞乞財則生輕慢不生愛敬。菩薩念言所以名為乞者。多是愚癡眾生以 c心故與作惡名。如是人者乃可名為施者。雖有財物復無施心。雖有財施心復無受者。若具足三事是大福德人。如有貧人得大寶藏心生恐懼。或王賊水火來見侵奪。遇ßd親友而語之言。我今為汝作諸方便令無喪失æ 大歡喜。菩薩得乞者以為善伴。心大歡喜亦復如是°(약유걸자무상보리변위수집불난。보살문걸자언여아여아심생환희。차금즉변여아무상보리。세간우치중생약문걸재즉생경만불생애경。보살념언소이명위걸자。다시우치중생이간심고여작악명。여시인자내가명위시자。수유재물부무시심。수유재시심부무수자。약구족삼사시대복덕인。여유빈인득대보장심생공구。혹왕적수화래견침탈。우치친우이어지언。아금위여작제방편령무상실즉대환희。보살득걸자이위선반。심대환희역부여시。)

번역

만약, 구걸하는 이가 있다면 위없는 보리심을 손으로 잡기에 어려움이 없나니, 보살은 구걸하는 이가 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더불어 내 마음에 기쁨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지금 곧 나에게 위없는 보리심을 주는 것이니까요. 세간의 어리석고 우매한 중생은 만약 재물을 구걸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하찮게 여기고 깔보되 사랑하며 존경하지 않습니다. 보살은 구걸하는 이라고 부르게 된 까닭과, 우매하고 어리석은 중생이 인색함이 많다고 하는 것은 악명(惡名)을 지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중생이라는 것은 보시자를 위한 이름으로 여깁니다. 그게 아니면, 비록 재물이 있어도 보시하려는 마음이 없고, 비록 재물과 보시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다시 받는 이가 없게 됩니다.

만약 주는 이와 받는 이와 보시물인 세 가지가 온전히 갖추어졌다면, 큰 복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만약 가난한 사람이 큰 보물창고를 얻으면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키는데, 혹 왕이나 도적이나 물이나 불이 보고 닥쳐서 빼앗을까봐 그렇습니다.

우연히 만난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위해 방편을 지어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하면 곧 크게 기뻐합니다. 보살이 구걸하는 이를 좋은 친구로 삼는 것으로써 마음에 큰 기쁨을 얻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해설

깨달음이란 무엇일까. 무상보리(無上菩提)를 여기서는 '위없는 깨달음'으로 번역했다. 위없는 깨달음의 다른 말은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이며, '아뇩다라삼먁삼보리'다.

곧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르는 말로, '위없이 바르고 동등한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말이다. 제바라보살은 이런 위없는 깨달음을 주는 이가 바로 구걸하는 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깨달음을 구하는 이들에게 안겨주는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이들이 추구해야할 보현행의 놀라운 방향이다.

우리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는 것이, 왜 깨닫고자 하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대장부론〉을 제대로 읽은 것이리라.

제바라보살은 중생이라는 말은 악명(惡名)을 씌운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중생은 더 이상 중생이 아니다. 탐욕에 빠진 중생이 자신에게 깨달음을 주는 보살이며, 부처라는 것이다.

제 5기
범음 범패 학당 모집

불교의식, 작법, 밸런스테크닉, 실전사주명리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범패의식 : 천도재 및 바라, 오공양작법, 실전강의, 각 사물 등
◆개강일시 : 2016년 6월 27일 오후 3시
◆교육과정 : 6개월 과정, 수시모집 / 수강료 10만원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 6시 까지
◆문의처 : 010-5065-5690 / 범패원장 제봉 스님

밸런스테크닉
◆놀라운 10초 통증제어(수기치유)
◆월1회 집중 특강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경력 : 30년 기공수련 / 월회비 : 10만원
◆연락처 : 010-6462-1859 (지도강사: 선혜스님)

실전사주명리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3시까지
◆지도강사 : 진제스님 (경력 30년 상담 및 지도)
◆6월 27일 개강 / 연락처 010-8948-7948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25번길 27 가동 205호 (중앙시장 수협 2층)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수기치유, 실전사주명리를 집중 지도합니다.

(사)영남범음범패원

민간자격 국가정보 5765 등록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평가◀
수정기공재활사 과정

호흡, 자기수련, 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숙지하고 이를 다양한 참가자들에게 보급하여 교육, 상담, 연구, 봉사활동을 하며 학교, 기업, 지역사회 공공기관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 전문가수준의 재활 활용능력을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심신이 복잡한 현대사회에 유망한 자격증이다.

http://soojung99.pe.kr/index.htmlPNO=1386
23274964492600

■ 강의내용 : 4 ~ 5차원 수정기공
선착순 15명 접수 (매월 시작)
4주 속성 완성
■ 일 정 : 매월 첫주 토, 일요일 1시 시작
4주 완성
■ 강 사 : 뇌교육 박사. 중의사.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 장 소 :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88-20
(성대역 부근)
■ 홈페이지 : http://soojung99.pe.kr/
■ 예 약 : 010-3463-7806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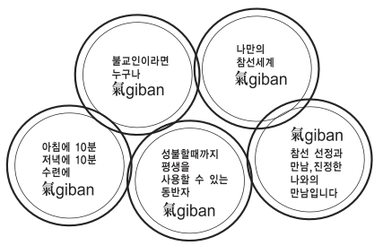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